

2008 새해실례 11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 지부장 한대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술단체 지원해야

포천시립극단 창단으로 포천연극 업그레이드 시켜야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한대관)는 1996년 한국연극협회의 인준을 받아 회원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연극전문단체로 그동안 다양한 연극공연을 통해 포천시민들과 함께 해왔다.

이보다 앞서 극단 한대가 포천연극인들의 하나로 모아 작품활동을 1982년부터 시작해 포천연극의 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는 3~4월 전국연극계 경기도에 선대회를 실시하고, 6~7월 경기도국제아마추어연극제, 9~11월 포천연극인연극제, 포천 청소년연극제, 포천연극제 등을 통해 포천연극의 연극예술발전은 물론 연극인 자문화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천연극제는 1년 동안 활동한 모든 연극단체는 물론 연극회에서 1년중 가장 실험을 기울인 작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한 대관(사진·34) 지부장은 포천 연극의 특징에 대해 "수수한 것이 특징이며 작품을 위주로

준비하여 무대에 선보이고 있다"며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연극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반월아트홀 개관과 더불어 한창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며 현재 포천 지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회 공연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초청하는 연극의 경우 1개 공연에 2~3천만원과는 지원금액만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한 지부장은 "포천시의회가 하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차원에서 포천시의회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극단의 작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초청하는 것은 풀뿌리연극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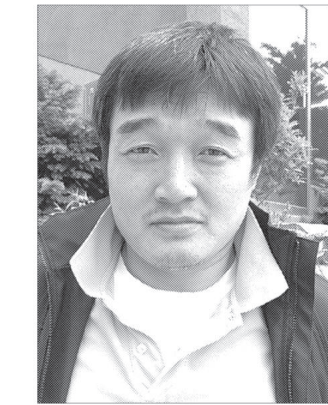
현재 포천에서는 연극을 비롯

해 무용, 국악, 음악 등의 공연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공연단체는 1년에 수십편씩 무대를 만들고 있는 포천반월아트홀에서는 단 1차례도 초청되지 않아 지역예술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하지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외부초청공연 5개 작품당 지역 작품 1개 등으로 쿼터제를 도입하여 지역예술인들이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예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한 지부장은 "포천의 문화나 생활, 인물들 주제를 해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싶다"며 "지역의 특화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지역인물을 중심으로 현대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포천시에 대해 한 지부장은 "시립극단 설치조례 제정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범실상부한 포천시립극단을 창단해 포천시 연극의 맥을 이어가려는 한편,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시민에게 바라는 사항은 포천시에서 연극활동을 하는 포천연극협회원들이 모두 이 지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업적인 작품보다는 순수한 작품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니 시민들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아 박수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천신문사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한 지부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포천연극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홍보기사가 제공돼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큰 애정과 관심으로 포천연극의 활성화가 되도록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천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지부장의 노력에 포천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포천연극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101

젊은 아이들이 나를 꼭 '여헌'이라 부릅니다



리효중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장현광만큼 임금의 간절한 부름을 받고, 또 이를 거듭 사양하는 드물다. 그는 23세 때인 1576년(선조 9)에 재능과 행실이 드러나 조정에 천거되었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잠시 보은현감에 임명되어 부득이 번쩍이나 사직을 청하였고, 이를 허락하지 않자 다시 세 번 사직을 청한 뒤 곧바로 향리로 돌아갔다. 직무유기 혐의로 의금부에 잡혀갔을 정도였다.

조정에 수십 차례나 그를 불렀으나 공조좌랑과 형조좌랑에 잠시 몸담았다가 사직하고, 다시 의성현령에 부임하였으나 몇 달 만에 돌아왔다. 인조반정 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임금의 극진한 부름을 받았으나 마지못해 사헌부 장령과 호조참판으로 잠시 부임하여 임금께 감사의 예를 올린 후 돌아왔을 뿐 의정부 우참찬의 벼슬도 거절하였다.

장현광이 벼슬을 사양하며 경상도 구미 인근에 살 무렵이었다. 어느 날, 그는 농부의 웃을 듣고 마당에서 보리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그는 마당에 넘어 두었던 보리를 마루 위로 거둬들였다. 그때 그의 나이가 많았으므로 얼굴은 농부처럼 검고 차림새는 매우 지저분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보면 꼭 촌스런 늙은이 같았다.

때마침 경상도 감사의 아들이 그 고을에 놀러왔다가 비를 피하여 장현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감사의 아들은 재 집을 찾아들듯 스스로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서서 슬픔 마루 한가운데로 들어와 앉았다. 그러면서 두 그는 집주인에게 인사 한마디 없었다.

감사의 아들은 마루에 널린 보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장현

광에게 물었다. "타작한 보리가 적지 않은데, 자네는 농사지은 곡식을 쪼여서 먹고사는가?"

장현광은 돌연 웃음이 나왔으나 꼭 참고 대꾸하였다. "헛것 농사를 지으면 안됐으니 꼭 참고 대꾸하였나니."

감사의 아들은 문득 장현광의 허리춤을 바라보았다. 그의 허리에 금으로 만든 작은 술잔이 매달려 있었다. 감사의 아들이 의아하게 여기며 다시 물었다.

"그 물건은 벼슬아치들이 갖고 다니는 물건인데, 자네는 곡식을 벼물로 바치고 말단관리로 지낸 모양이군."

이반에도 장현광은 애써 웃음을 참으며 공손히 대답했다. "요즘 벼물을 바치면 벼슬을 올려주는 일이 많아 시골 사람들도 벼슬을 얻을 수 있지요."

"자네, 아들이 보면 꼭 촌스런 늙은이 같습니다."

"집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가?"

"일이 있어 지금 도성에 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지금 부제학으로 있지요."

당시 장현광의 아들 장응일은 부제학이었다. 감사의 아들은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다.

"이 마을에 여헌 장현광 선생이 사신다는데 혹시 아세요?"

"이웃에 사는 젊은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나를 부를 때 꼭 여헌이라고 부릅니다."

감사의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급히 마당으로 내려가 엎드리며 말했다.

"제가 어리석고 아둔하여 선생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현광은 그를 마루 위로 올라오게 하고는 점잖게 꾸짖었다.

"선비는 말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거라네. 앞으로 조심하게."

그 뒤 감사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직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사죄하였다고 한다.

장현광(張顯光) 1554년(명종 9)~1637년(인조 15).

본관은 인동(仁洞)이며 자는 덕희(德禧), 호는 여헌(旅軒)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23세 때인 1576년(선조 9) 조정에 천거되었다. 이후 선조는 그에게 수십 차례나 벼슬을 내렸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597년 여려 차례 그를 조정에 천거했던 유성룡이 그의 학식에 감복하여 자기 아들을 그 문하에 보내 배우게 하였다.

인조 때도 수십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대부분 사은(謝恩)만 하고 돌아오거나 아예 부임하지 않았다. 병자호란 때 삼전도(三田渡)에서 임금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해 입암산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반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주역도설(周易圖說)』, 『경위설(經緯說)』 등의 저서가 있으며, 시호는 문강이다.

그의 양자인 장응일(張應一)은 숙종 때 부제학과 대사간을 지내고 가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장응일이 부제학을 지낼 때 그는 이미 여헌 장현광이 사병했으므로 위의 이야기에 다소 과장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칼/럼

'두드리 GO' 이쪽에서

깊은 밤 별이 떨어지는 소리는 조용하다. 사람이 별을 다는 데는 여간 떠들썩하고 얼마나 시골벽에서 아담들인지 모르다. 아저씨 사방에 별이 피고 지는 소리는 또 듣고 사람이 별을 다는 소리에만 관심이 많은 걸까.

어떤 시인은 '시론,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라고 말했다. 이상하리만 그런가 보다. 대개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곡식을 먹고 살지만 때로는 소리를 타작(打谷)하여 떨어진 과자와 리듬을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곡식은 입을 통하여 영양을 섭취하지만 소리의 울림은 귀를 통해 심장으로 흘러간다. 소리가 주는 양식은 혼(魂)의 양식이다. 그래서 시인은 잠자는 영만(靈魂)을 깨우기도 하며 다시 깨우기도 한다. 자연의 언어는 소리를 합치다.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소리를 얻어 언어를 배우고 마음의 양식을 살찌운다. 소리가 언어가 되고 언어가 춤이 된다.

소리의 빛깔은 흑백(黑)과 칼라(color)다. 지금까지 인간이 귀가 소리에 지지고 타락(墮落)한 적도 없다. 총소리에 놀란 인간의 귀는 새로운 소리를 들을 여지를 열어준다. 인간의 귀는 밤과 빛과 소리와 섞여 붉은 불꽃이 된다.

귀는 하나의 생명이지만 불꽃은 예술이다. 불은 바람을 들고 부딪치거나 추락(墮落)해야 소리가 난다. 나뭇잎 역시 바람을 들고 소리를 낸다. 이슬도 풀잎이 있어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바람도 가지를 분지르며 소리를 내고 빗방울을 들고 땅에 떨어야 소리가 된다. 이것이 소

리의 미학(美學)이 아닌가. 그날 '의정부시무용단'의 '이미속 단장'이 연출한 '소리의 미학'은 인간이 절규(絶叫)하는 열정이었다. 시계 추가 무를가는 시간의 소리를 초월한 인간의 피와 살을 찌르는 장미가시보다 야포기도 한 열정이었다. 볼 지핀 석탄에 바람이 가해져 타르르는 불꽃이었다. 뜨거운 욕정의 숨소리이자 오르가즘이었다.

그 오르가즘은 한 생명을 입체시키는 경이로운 메아리였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소리의 메시지가 인간적 화해이며 하늘과 땅의 또 다른 소통이었다. 인간은 신의 '천지창조'의 소리를 영감으로 전해들을 수 밖에 없었다. 신(神)은 말로써 소리를 창조했지만 인간은 어떤 도구로든 소리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고작 미국의 '발리 데이비스'의 오토바이 소리가 말 달리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비속한 흥에 불과하다. 소리의 도판은 그다지 갈탄하거나 외문화지도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잠이며 공해가 된다.

그런데 그날의 소리는 우리가 공명(共振)한 그대로 흥에도 못방도 아닌 위대한 창조 소리였다. 양산은 햇빛의 소리를 듣게 하고 우산은 빗소리를 듣게 한다. 사람은 소리의 맛깔대로 기쁨과 울분을 증폭시키며 흥분하며 미련이다. 소리고 사람과 대화하는 일종의 언어의 수단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발견했다. 종다리가 하늘에서 울고, 소쩍새가 뒷동산에서 울듯이 말이다. 약보대로 두들긴 피아노 소리는 이미

예고된 작품의 표현이다. 물론 '두드리 GO'의 소리가 이미 모의된 메시지의 전달이라고는 하지만 가슴에 와 닿은 느낌의 소리는 화와 삶의 흥의(弘盛)이자 한울이었다. 마치 창조자 열망의 자 영감(靈感)이며 생명탄생의 찬가(讚歌)로 들었다. 다시 말해 그날의 소리는 막힌 귀를 열고 계온 심장을 불러 깨우는 구체적 언어의 재발이었다.

인간이 소리를 들어야만 말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알고 신명(神明)이 났다. 또한 빛의 소리도 들었다. 빛의 소리는 행자의 발과 의 소리는 불체에 흡수되어 잠시 그 반대편에 떨어진다. 빛의 소리는 어둠을 밝히려는 커튼이다. 이처럼 소리와 빛의 위력은 대단하다. 이별을 무디트 리기도 하고 사랑과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문화와 문화가 만나게 하기도 한다. 미친 소리는 발광(發狂)이 비속한 흥에 불과하다. 소리의 행보에는 그다지 갈탄하거나 외문화지도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잠이며 공해가 된다.

문화가 된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주간

진 켈리(Gene Kelly)와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뮤지컬과 모던 팝의 전설



1940년대 초반 할리우드에 등장한 진 켈리(Gene Kelly, 1912~1996)와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1915~1998)는 오늘날 한 사람은 뮤지컬계의 전설로 또 한 사람은 유명한 모던 팝(Modern Pop)의 대종가수로 세계인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있다. 진 켈리와 프랭크 시나트라는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eigh, 1945, MGM)>와 <온 더 타운(On The Town, 1949, MGM)> 등 두 작품에 함께 출연했는데 두 작품 모두 1940년대 미국 뮤지컬의 새바람을 일으킨 작품으로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았다. 두 사람은 1940년대 할리우드 뮤지컬의 하나의 축을 이룬 사람들이었지만 시작과 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진 켈리는 할리우드에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뮤지컬 스타였다. 노래와 춤 그리고 연기의 삼박자를 갖춘 스타급 연기자로 당시 대부분의 뮤지컬 스타들이 할리우드에 진출했던 것처럼 MGM 스튜디오의 아서 프리드(Arthur Freed)에 의해 할리우드에 스카우트되었다. 다이 나리하고 발레적인 경향의 춤 스타임을 지닌 진 켈리는 댄서로서 상상력이 풍부한 참신함과 강건함을 특기로 하고 있었다. 이전까지 뮤지컬 댄스계의 지존이었던 프레드 아스타이(Fred Astaire)가 탭댄스 스타일과 볼륨 댄스의 대명사였다면 전혀 다른 페르소나

를 가진 진 켈리는 이미 하락의 길을 걷고 있던 프레드 아스타이의 후계자로 주목 받으며 첫 작품 <포미엔 마이 갈(For Me and My Gal, 1942, MGM)>로 일약 정상에 올랐다. 이후 <커버 걸(Cover Girl, 1944)>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eigh, 1945, MGM)> <지그펠드 폴리스(Ziegfeld Follies, 1946)> <해적(The Pirate, 1948)> 그리고 <온 더 타운(On The Town, 1949)>에 이르기까지 연기자로 탄탄대로를 걸었으며 뮤지컬 사상 최고의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사랑은 비를 타고(Singin' In The Rain, 1952)>에서는 감독까지 겸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오늘날 진 켈리는 뮤지컬계의 최고의 배우이자 감독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반면에 프랭크 시나트라는 우리에게 가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방면에 걸쳐 활동했던 연예인이었다. 처음에 무명가수로 활동하던 중 할리우드에 데뷔했는데 뮤지컬 영화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eigh, 1945, MGM)>에서 진 켈리와 공동 주연을 맡게 되어 당시 할리우드에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연기자로서의 경력이 앞선하며 연기력 또한 많이 부족한 시나트라가 어떻게 주인공역에 캐스팅 되었는가에 모든 관심이 모아졌다. 더욱이 마피아들과의 돈독한 친분으로 인해 그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어졌고 그 상

황을 토대로 1972년에는 영화 <대부(God Father)>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eigh)> 이후 시나트라가 출연한 뮤지컬 영화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영화 <대부>에서처럼 마피아들의 협박과 돈으로 배역을 얻었다는 부정적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더욱 가수로서의 활동에 박차를 가한 시나트라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이미 빅밴드(Big Band)가 유행했던 스윙시대(Swing Era)에 노래를 시작했던 시나트라는 1940년대 중반에 솔로로 전향하며 재능 있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지만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뮤지컬 배우로서도 능력에 의심을 받게 되자 친척인 내남을 보내게 된다. 1949년에 <온 더 타운(On The Town)>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연기력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인지 더 이상 뮤지컬 영화에 출연을 거부하고 드라마 연기에만 집중했다. 설상가상으로 1952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럼비아(Columbia Records)'와 'MCA' 레코드 회사로부터 결별 통지를 받기에 이른 시나트라에게는 배우와 가수로서의 경력에 최대의 위기를 맞은 해였다. 그렇지만 1953년에 <지상에서 영원으로(From Here to Eternity)>를 통해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제2의 연기 인생을 걷게 된다. 이 작품으로 그동안의 연기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모두 잠재운 시나트라는 이후 <아가씨와 건달들(Guys and Dolls, 1955)>과 <80일간의 세계일주(Around the World in 80 Days, 1956)> 등 뮤지컬과 드라마를 남달리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렇지만 그의 주된 활동영역은 가수였다. 1953년 음반회사 '캐피톨 레코드(Capitol Records)'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이래 그의 음악 인생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1969년 발매된 앨범 '마이 웨이(My Way)'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앨범 속 타이틀 곡인 폴 안카(Paul Anka) 작곡의 '마이 웨이'는 프랭크 시나트라를 세계적인 가수로 만들어주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장 이상의 레코드를 판매한 가수이며 최초의 모던 팝 스타로 평가된다. 진 켈리가 뮤지컬의 전설인 것처럼 프랭크 시나트라는 대중음악의 전설적인 솔로 아티스트의 길을 걷은 가수였다.

진 켈리와 프랭크 시나트라를 비교할 때 시나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장 이상의 레코드를 판매한 가수이며 최초의 모던 팝 스타로 평가된다. 진 켈리가 뮤지컬의 전설인 것처럼 프랭크 시나트라는 대중음악의 전설적인 솔로 아티스트의 길을 걷은 가수였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35)

'피돌이'의 곰 사냥

내 고향 포천 어느 마을에는 옛 부터 살고 있던 '곰 이야기'가 있어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까지도 지혜로운 선조들의 협동심을 되새기게 합니다.

깊은 산속 포천 고을 어느 두메산골에 큰 곰 한 쌍이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곰 한 쌍은 몸집이 크고 우렁차며 어쩌다 산속에서 곰을 만난 두메산골 마을 사람들은 금방 깨우려다 실신하기도 하고 잡혀 먹히는 불운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 외에는 마을 사람들이 기르는 개, 닭, 돼지 같은 가축을 잡아 먹기 일쑤였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곰들이 원수 덩이라고 할 원성이 고을 안에 자자하였습니 다. 고을의 군사들도 몇 차례 곰 사냥을 나왔으나 공포에 질려 물러가고 늘 실패로 끝나자 원수 덩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촌장님과 고을 원님은 고을 이곳 저 곳마다 방을 불렀습니다.

"두메산골 곰 한 쌍을 잡는 사람에게는 쌀 열 섬까지 논과 군 관 벼슬을 내린다. 고을 원 OOO,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곰 잡아 아이디어가 속출하였습니 다. 「함정을 판다, 죽창, 쇠창을 사용하여 잡는다 등등」모두 실패로 끝나려나? 하던 어느 날 두메산골 피돌이가 마을 촌장님을 찾아가

「곰 잡아!」피를 말씀드린 것이었 습니 다. 「곰이 잘 다니는 길에다 큰 바위 두 개를 매달아 그네같이 흔들거리게 하여 놓자」는 의견이었 습니 다. "그렇다면 그 바위가 곰을....?" "반드시 곰 한 쌍을 잡고 말 터이니 걱정 마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암요! 피돌이는 자신 있게 촌장님을 설득시켰습니 다. 그래서 두메산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곰 한 쌍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 큰 바위 두 개를 흉념을 빗칠로 묶어 매달아 놓았습니 다.

그들이 간 후날 날 배가 고프니 곰 한 쌍을 늘 다니던 길로 어슬렁어슬렁 내려 왔습니 다. '야! 산 중의 왕 나, 곰이 다니는 길에

웬 바위 한 쌍(?)...너 잘 만났다.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어 화가 나는 판국에 바위 두 녀미 산 중 왕 곰의 행차를 막고 거드름을 피우? 너 내 박치기 맛을 모르는 모양이지? 맛 좀 보라! 곰 한 쌍은 밤나무 가지에 매달린 바위 덩이 두 개를 들이서 차례로 박치기 하였습니 다.

받아 치면 물러갔다 다시 오고 세계 박치기 하면 또 부메랑 같이 제자리로 밀려와 시계추같이 바위추 박치기 노릇을 하였습니 다. 곰 한 쌍은 머리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르고 급기야는 머리가 박살이 나는 줄도 모르고 부딪히는 박치기를 계속하다가 머리가 박살나고 죽었습니 다.

오랫동안 두메산골 마을을 괴롭혔던 곰의 소동은 어린 피돌이의 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고을 안하무인격이었던 호호들을 비유한 듯한 이야기는 지금껏 전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필지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追慕惕齋李書九先生 (추모척재이서구)



香隱 柳鳳鉉 포천한시사 강사

先生睿智又聰明(선생예지우명) 知識文章自夙成(지식문장자숙성) 선생께서는 예가 있으시고 또 총명하시니 지식과 문장을 스스로 일찍이 이루셨도다.

卓越經驗能盡性(탁월경륜능진성) 超群功績特加誠(초군공적특가성) 탁월한 경험은 능히 천성을 다하셨고 초군한 공역은 특별히 정성을 다하셨도다.

漢詩四大大家一(한시대참가일) 官儒三丞位首名(관작삼승위수명) 한시는 시대대에 일하시고 관직은 정승의 반열에 그 이름을 남기셨네.

臨事先看平處理(임사선간평처리) 施仁布惠就繁榮(시인도덕취번영) 큰 일은 선견지명으로 편안하게 처리 하셨으니 시인 선정하시어서 나라번영에 큰 공헌을 하셨도다.